

De diligendo Deo

: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의 사랑 개념 연구

김 재 현*

目 次

- I. 서론: 믿음과 사랑 사이
- II. 베르나르의 생애와 사상
- III. *De diligendo Deo*에서의 사랑의 개념
- VI. 결론: 다시 사랑을 논하며

I. 서론: 믿음과 사랑 사이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 역사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기독교의 세 가지 헌장에서 가장 강조되어 온 것은 믿음이다. 특히,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라는 개신교 종교개혁자들의 강조점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은 오늘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신앙의 잣대(*regula fidei*)가 되어 왔다. 종교적 믿음은 현실이라는 외투와 예측가능성을 뛰어 넘어 종교성을 받아들이고 절대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기독교 역사에서 믿음이 항상 우선적인 중요성을 갖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중세 수도자들의 삶과 신앙에서는 종종 사랑이 믿음보

* 한국고등신학연구원

다 더 강조되었다. 중세 수도원 문헌의 중요 본문 중의 하나가 아가서였다는 사실도 이를 반증해 준다. 솔람미 여인의 입술과 가슴 사이로 흘러내리는 솔로몬의 사랑이야기는 중세 수도사와 학자들의 손에서 은유와 상징, 모형과 비유라는 문학적 도구를 통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재해석 되었다(Matter, 1990). 이에 대한 중요한 예를 우리는 중세 수도원 문학이라는 장르와 사랑에 기초한 신비주의(love mysticism)를 가장 잘 보여준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of Clairvaux)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베르나르를 포함한 중세 수도사들은 '사랑(*amor/caritas*)'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했으며, 어떤 점을 강조 했을까? 그들에게 사랑의 주체와 객체는 누구였을까?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아래를 향한 사랑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아니면 인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더 강조한 것인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 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는 성경의 구절(1요한 4:11)에서 신의 사랑을 본받는 인간 사이의 사랑을 강조한 것인가? 중세시대 성례전과 교회의 각종 가르침을 따라 믿음의 성장을 '가시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었듯이, 사랑의 과정에도 - 누가 누구에 대한 사랑을 하든지 간에- 이를 드러낼 구체적인 방법과 단계가 있었을까?

중세 수도원이라는 맥락에서 베르나르의 삶과 사상은 이 같은 사랑의 개념, 사랑의 단계와 과정과 관련된 물음에 좋은 예를 제공해 준다. 12세기 르네상스를 가능하게 했던 당대 번영하던 수도원의 정신과 삶, 그리고 사상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베르나르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런 맥락에서 그의 저서인 *De diligendo Deo*를 중심으로 베르나르의 삶과 사랑에 대하여 고찰해 보겠다. 본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전반부에서 필자는 베르나르가 속한 시토회(Cîteaux, Cistercians)의 배경에서 시작하여 베르나르의 생애와 주요활동, 작품과 사상을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후반부에서는 *De diligendo Deo*의 본문 분석을 통해 사랑에 대한 베르나르의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II. 베르나르의 생애와 사상

II-1. 생애와 주요 활동

베르나르는 1090년 프랑스 디종(Fontaines-Les-Dijon)의 비교적 부유한 가문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베르나르를 수사신부들(canons)이 운영하는 학교에 보냈다. 1113년 세 명의 형제들과 한 명의 삼촌을 포함한 3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베르나르는 시스터시안 교단의 첫 번째 수도원이었던 시토에 입교함으로써 구도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스콜라적 삼입구”라 불리는 시토회는 베르나르에게 중요한 종교적인 모판을 형성해 주었다. 시토회는 베네딕트(Benedict)에서 클루니(Cluny)로 이어지는 수도원 전통을 따라, 몰레슴(St. Robert of Molesme)에 의해 1098년 디종(Dijon) 인근에서 시작되었다. 3대 수도원장인 하딩(Stephen Harding)의 ‘사랑의 헌장(Charter of Charity)’의 제정에서 보듯, 이 시기에 보다 엄격한 규칙서 준수와 자매 수도원들의 자율적 활동을 근거로 하는 새로운 종교적 운동이 시토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Lawrence, 172-180).

베르나르는 이른 시절부터 남들을 감동시키는 능력과 비범성을 보여 주었다. 그는 하딩의 명령에 따라, 시토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클레르보에 새로운 수도원을 세웠으며, 이후에 그는 일생동안 여기서 머물렀다.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68개의 시스터시안 공동체가 세워졌으며, 시토회라는 이름 아래 360여 개에 이르는 수도원이 유럽에 형성되었다. 베르나르가 속한 당대의 ‘개혁적인’ 베네딕트 수도사들은 보다 엄격하고 검소한 생활을 지향했으며, 기도와 말씀 읽기를 강조했다. 이러한 훈련은 이후 베르나르 자신이 클레르보에 세운 수도원이 보여주는 단순하고 검소한 건축물과 검소한 수도사들의 삶에서 잘 드러난다.

당대 유럽사회의 종교 문화적인 힘이 클루니에서 시스터시안으로 옮겨 가면서, 시스터시안의 수도원장들은 그레고리 7세의 개혁운동의 구체화 작업에서 시작하여 십자군의 파견, 그리고 이단의 박멸에 이르기

까지 중세 기독교의 발전과 수호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었다. 12세기 중반 새로운 종교적 지도자로 떠오른 베르나르의 삶도 예외가 될 수는 없었다. 보다 나은 수도원적 이상을 위한 클루니와의 논쟁, 중세 고딕건축을 대표하는 생 드니(St. Denis) 대성당의 확장과정에서 보여준 수제르(Suger)와의 청빈을 중심으로 한 신랄한 논쟁, 교황의 선출과 십자군을 독려하기 위한 격렬한 설교, 이제 막 시작된 대학의 등장과 새로운 사상가들에 대한 논쟁에 이르기까지 베르나르가 남긴 삶의 족적은 당대 기독교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상황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A. Bredero, 9-16, 218-248).

베르나르는 1128년 트로이에(Troyes) 회의에 비서관으로 참여한 것을 계기로, 정치 종교적인 활동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 회의에서 그는 템플라 기사단(the Knights Templar)이 인준을 받는데 크게 공헌했다. 1130년에는 교황 간의 세력 다툼에 직접 관여하였으며, 이노첸티우스 2세(Innocentius II)의 개인적인 거룩함에 기초하여 그를 적법한 교황으로 지지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시스터시안 교단에 큰 도움이 되었다. 1130년 교회의 분열(Schism)이 시작되었을 때 베르나르는 아나클레투스(Anacletus)에 반대했다. 그러나 이 분열은 실망스럽게도 1138년에 아나클레투스의 후계자가 죽어서야 종지부를 찍을 수 있었다. 1145년에는 한때 시스터시안 수사였던 유게니우스 3세(Eugenius III)가 교황이 되었고, 이와 함께 베르나르는 12세기 중반 유럽의 종교적 지형에서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아벨라르(P. Abelard)의 등장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도원과 성당교육, 그리고 궁정교육을 넘어선 학교와 대학이라는 새로운 교육기관의 등장은 지금까지의 기독교 중심의 지식형성 구조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사회와 교회는 이에 대한 기독교의 반응과 대응을 요구했다. 베르나르의 경우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듯이, 이에 대한 12세기 기독교의 대응은 일반적으로 억압적이었다. 1140년에는 교회는 아벨라르의 신학과 신앙을 조사했다. 친구 윌리엄(William of Saint Thierry)이 아벨라르의 글에서 이단적 요소를 발견했다고 말했을 때, 베르나르는 이 문제에 개

입했고 결국 아벨라르를 파문했다. 이 같은 상황은 질베르(Gilbert of Poitiers)의 경우에서도 발생했지만(1148), 별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러나 당대 카타르파(Catharism)를 비롯한 이단, 대학을 기반으로 새롭게 등장한 사상, 화려한 스테인드글라스와 웅장함을 자랑하는 고딕양식의 건축문화를 억누르고 '가시와 엉덩퀴'를 뽑아내기 위한 베르나르의 노력은 죽을 때까지 지속되었다.

기독교를 발전시키고 수호해야 한다는 베르나르의 개인적 열심과 변화하는 상황 사이의 긴장과 역설은 십자군운동과 이단박멸에 대한 자신의 활동에서 잘 드러난다. 베르나르는 클루니의 수도원장이던 피에르(Pierre Maurice de Montboisier, Peter the Venerable)의 부탁과 교황 유게니우스와 관계 등으로 2차 십자군의 출발을 위한 설교를 했다. 그러나 2차 십자군은 1148년에 다마스쿠스(Damascus)에서 패배했고, 지치고 나이든 베르나르는 클레르보의 수도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힐데가르트(Hildegard)에 보낸 편지 안에서, 독일 마인츠 강변에서 등장한 카타르인들에 대하여 우려를 표현했으며, 남부 프랑스의 랑그독 카타르를 박멸하기 위해 직접 설교에 나서기도 했다. 베르나르는 카타르인들을 '가시와 엉덩퀴'로 생각했지만, 카타르인들은 베르나르를 '응응거리는 벌'로 폄하하면서 비웃었다.

일생동안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얻기 위해 노력해 온 베르나르는 1153년에 죽었다. 그리고 1174년에 성인이 되었고, 1830년에 교회의 박사(Doctor of the Church)라는 칭호를 받게 되었다.

II-2. 주요 작품과 사상

베르나르는 무엇보다 수도원, 클레르보에 있는 시토 수도원을 배경으로 한 학자이다. 그는 수많은 논쟁과 공격적이고 억압적인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지만, 베르나르의 일차적인 관심은 무엇보다 실천적인 수도원 영성의 발전에 있었다. 사실, 적지 않은 그의 저서들은 여행가와 논쟁가로서의 모습을 넘어 따스함과 깊은 고요함을 드러내주는 수도원 신비주의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다. 베르나르의 대표적인 저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베르나르의 대표적인 저작 중의 하나는 *De gradibus humilitatis et superbiae*인데, 이 책은 수사들에 대한 조언을 익살스럽게 기록한 책이다. 1124년경에 지어진 이 책은 베네딕트 규칙서에 기초하여 자신의 영성에 대한 가르침을 정리한 것이다. 이는 시스터시안이 서 있는 전통적 뿌리를 보여주면서, 이후 전개되는 베르나르 사상의 핵심적 개념을 잘 보여준다. 설교가로서 베르나르의 모습을 가장 잘 그려준 작품은 아가서에 기초한 설교 모음(*Sermones super Cantica Cantorum*, SC)이다. 우리는 현재 86편에 이르는 베르나르의 아가서 설교를 갖고 있다. 18년 여에 걸쳐 만들어진 아가서 주석은 대부분 시스터시안 수도사들의 총회에서 행한 연설문을 모은 것이다. 그는 주로 성경본문에 의거해서 반복, 유추, 사색 등을 통해 설교문을 작성했다. 사실 베르나르에게서 설교는 성경 해석학에 대한 가장 자연스런 방법이였다.

*De consideratione*는 자신의 영적 자녀인 교황 유게니우스 3세를 위해 지은 베르나르의 편지를 묶은 것인데, 이는 정치적인 일에 매여 있는 베르나르의 진솔한 모습을 여러 측면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는 자신이 사랑한 유게니우스에 대한 염려와 진지한 관심이 들어 있다. 베르나르는 또한 그레고리 1세의 *Regula Pastoralis*에 기초하여 일(일상적인 삶)과 묵상(명상적인 삶) 사이의 균형과 적절한 배분을 강조했다. 제2차 십자군이 실패했다는 것을 알고, 베르나르는 이러한 실패를 기독교인들을 보다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해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그는 동시에 교황권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이는 중세시대 교황권의 확대와 그레고리 7세에 의해 다시 촉발된 교황권과 세속권력의 분쟁에 또 하나의 전기를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¹⁾

급변하던 12세기라는 '시대를 짊어진 괴물'로서의 이러한 다양한 삶의 모습과 작품에도 불구하고, 베르나르는 우리에게 중세 기독교에서

1) 그 외에도 여러 작품들이 남아 있다. *Sermones de diviersis, Sententiae, Parabolae, De diligendo Deo*를 비롯한 많은 단편적인 글을 남겼다.

가장 신비적인 수도자로서의 모습을 간직한 채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그의 저서 *De diligendo Deo*와 사랑이라는 개념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 교조적이고 적대적일 정도로 보이는 베르나르의 삶의 족적을 12세기라는 종교문화와 그의 저작을 기초로 하여 어떻게 해석해 낼 것인가라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사실이다.

Ⅲ. *De diligendo Deo*에서의 사랑의 개념

Ⅲ-1. *Caritas sive amor*

(1) 사랑과 관련된 시스터시안들의 문헌

베르나르가 전개한 사랑이라는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그 자신의 사상적이고 종교적 토대였던 시토회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개념의 전개와 베르나르의 다른 작품의 사랑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독교 영성과 사랑에 기초한 베르나르의 신학적 담론은 시토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연결점은 신학적인 사상과 문학적인 형태라는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클루니의 귀족화와 조직화에 대한 개혁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시토회는 가난, 육체적인 노동, 그리고 사랑에 기초한 신비주의적 정신을 강조했다. 여기서부터 베르나르는 사랑(*affectio/caritas/amor*)이라는 개념과 베네딕트의 규칙서에 기초한 신비주의적 영성을 발전시켰다. 예를 들면, 베르나르를 비롯한 시토회 구도자들의 사랑 개념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라는 보다 높은 고지에 이를 것을 강조한 베네딕트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직접 관련이 있었던 것이다.²⁾

신학적 사상을 정립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시토회

2) 다음과 같은 베네딕트 규칙서에 대한 베르나르의 해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Rule of Benedict, Prologue 49, 7.67, 73.9.

의 초기 단계부터 각종 문헌을 통해 크게 강조되었다. 하딩이 작성한 수도원 간의 관계성에 대한 사랑의 헌장(Charter of Charity)은 이미 사랑이 자매 수도원 사이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임을 밝혔다. 알리에(Amadeus Hallier)의 『아엘레드의 수도사 신학 (*The Monastic Theology of Aelred of Rievaulx*)』은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경험과 사랑의 개념이 조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베르나르의 친한 동료요 마지막 병상지기였던 생 티에리의 윌리엄(William of St. Thierry)의 *De contemplando Deo*와 *De natura et dignitate amoris*는 사랑이 진정한 묵상과 명상의 도구임을 강조했다. 북부의 베르나르(Bernard of the North)라 불리는 베르나르의 제자인 리보의 아엘레드(Aelred of Rievaulx)는 베르나르의 부탁을 받고 수련 중인 구도자들을 위해 *Speculum Caritatis*이라는 지침서를 썼다. 사랑을 주제로 한 시스터시안들의 일련의 작품 활동과 함께, 아가서 주석과 전례력에 기초한 일련의 작품 활동도 당대 중세 수도원 문학의 모범을 보여준다. 그리고 베르나르의 아가서 주석서가 보여주듯이, 이후에 시토회 내외에서 여러 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중세 수도원 신학과 문학을 집대성한 설교문 형태의 이러한 사상집은 베르나르보다 1년 먼저 수도원장이 된 휴(Hugh of Pontigny)에서 엘리낭(Helinand of Froidmont)에 이르는 기나긴 역사를 갖고 있다.³⁾

(2) 베르나르의 다른 작품에서의 사랑 개념

다른 시스터시안 동료들에게서와 같이 사랑에 대한 베르나르의 논의는 그의 저작 곳곳에 배어 있다. 베르나르의 첫 번째 작품이자 중심 작품인 *De gradibus humilitatis et superbiae*는 사랑에 대한 자신의 초기 사상을 보여주고 있다. 베르나르는 우리가 올라야 할 산의 정상에 있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라고 주장했다.⁴⁾ 베네딕트 규칙서에 대한

3) 이 부분에서 논한 다양한 작품들을 위해서는 B. Pennington, "The Cistercians"를 보라. B. McGinn and J. Meyendorff, *Christian Spirituality: Origins to the Twelf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85), 205-217.

4) 시내산 등정과 그리고 이러한 개념이 가진 상징성은 수도원 문학과 일반 신학

주석 형태를 취한 이 작품에서, 베르나르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인간에게 주어지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듣는다”고 말했다(Pennington, 208).

중세 수도원 문헌에서 사랑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자료를 담고 있는 아가서 주석서에서 베르나르는 사랑의 정수를 유감없이 설명해 내고 있다. 인간은 사랑의 충만함을 통해, 여기서 “하나님이 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순간적인 영광의 빛에 의해 희미하게 느껴지고 이해됨으로 큰 사랑의 불길이 영혼 안에서 타오르게 되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SC, 18.6). 아가서에서 전개된 사랑에 대한 논의는 필자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고찰할 *De diligendo Deo*에서도 다양한 인용을 통해 유감없이 드러난다.

사랑에 대한 베르나르의 논의는 다양한 설교문과 저작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그는 은총과 자유의지를 논하는 과정에서도 인간의 사랑이 갖는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 성경의 신비적이고 영적인 의미를 추출해내고자 하는 그의 설교문들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를 밝혀주고 있다.

III-2. *De diligendo Deo*와 그 문학적 구조

*De diligendo Deo*는 베르나르의 가장 빼어난 작품도 아니고, 지금까지 학자들의 큰 주목을 받은 작품은 아니다. 1934년 질송(Gilson)에 의해 제안된 베르나르에 대한 통합적인 신비주의 신학연구 방법론은 베르나르 연구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지만, 개별문헌들이 가진 독특성과 문학적 구조를 크게 살려내지 못했다. 베르나르 연구를 방향지운 질송의 영향은 *De diligendo Deo*에도 그대로 미쳤다.⁵⁾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에서 중요한 상징성을 지닌다. 닛사의 그레고리는 좋은 예를 제시해 주고 있다. Gregory of Nyssa, *The Life of Moses* (New York: Paulist Press, 1978).

5) *De diligendo Deo*에 대한 현대어로 된 다양한 번역 중에서 본인은 Emero Stiegman에 의해 주석된 책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스티그만은 자신의 책의 참

스티그만이 인용한 머튼(T. Merton)의 다음과 같은 주장은 아주 적절한 것처럼 보인다: “그의 다른 어떤 개별적 작품보다도, 이 책은 그의 사상의 가장 깊은 이해를 던져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12세기의 시스터시안 작가들의 신학과 정신에 대한 열쇠를 제공해 주고 있다”(Stiegman, 45). 그러나 최근, *De diligendo Deo*의 탄탄한 본문 구조와 사랑이라는 주제에 대한 집약적 논의는 베르나르의 사랑개념과 신비주의를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입문서로 자리 잡고 있다. 무엇보다 양적인 측면에서, 광대한 아가서 주석서보다는 비교적 쉽게 다룰 수 있는 적절한 양도 이 책을 선호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추기경 아이메릭(Haimeric)에게 보내는 서론에 이어지는 *De diligendo Deo*는 총 4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이메릭에게 보내는 서론은 먼저 베르나르의 이어지는 글이 추기경의 이전 질문-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에 답하는 것임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이 글의 후반부(34-40장)와 함께 이 작품이 기록된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 *De diligendo Deo*가 쓰여진 정확한 연대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베르나르가 카르투지안(Carthusians)에게 글을 썼던 1125년에서 이 편지를 받은 사람인 추기경 아이메릭이 죽은 해인 1141년 사이에(서론) 쓰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⁶⁾ 이 글이 다루고 있는 질문이 당대 최고의 정치적 실권자인 교황의 재무비서(Chancellor)에 의해 제기되었다는 점도 매우 흥미롭다.

40개로 이루어진 *De diligendo Deo*의 본문은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분은 추기경 아이메릭의 질문에 대한 답의 형태로 ‘왜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담고 있다(1-22장). 둘째 부분은 사랑의 네 가지 단계를 논하고 있다(23-33장). 셋째 부분은 카르투지안들에 대한 편지에 대한 보완적인 논쟁형식

고문헌에서 *De diligendo Deo*에 대한 최근의 다양한 번역서들과 참고문헌을 제시하고 있다. E. Stiegman, 199-203.

6) 본문 34-40장은 PL182, 109-115에 나온다. 여기서 서론과 결론은 이 저작의 연대를 추정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으로 부가적인 논의와 결론을 담고 있다(34-40장). 사랑이라는 개념과 사상의 흐름을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먼저 전체적인 구조를 제시해 주는 것이 우리의 이해를 도와줄 것이다. 아래의 개요는 스티그만의 분석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 보았다(Stiegman, 66-67).

스티그만은 이 작품이 빠른 보폭과 강력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라틴어 리듬을 가진 매우 유쾌한 작품으로 보았다(Stiegman, 50-51). 편지 형식의 짧은 논문에 350여 개에 이르는 성경구절을 인용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글이 보여주는 진지한 지적 논의와 신비적인 통찰력을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베르나르는 스콜라주의적 논리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교부 시대 이래로 발전해 온 영성에 대한 묵직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인간 자신의 이기심을 죽이면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하나님과 우리의 이웃과 연결시켜주는 영적인 사랑을 얻을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자연적인 사랑에서 초자연적인 사랑으로의 수도사의 영적이고 실천적인 진보와 명상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베르나르의 영적 작품들 가운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Stiegman, 59-66).

*De diligendo Deo*의 개요

첫째 부분: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1-22)

- I. 하나님이 왜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1-16)
 - a) 인간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들 (2-6)
 - b)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들 (7-15)
- II.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16-22)
 - a) 하나님은 제한 없이 사랑되어야 한다. (16)
 - b)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때문에 사랑되어야 한다. (17)
 - c)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 (17)
 - d) 하나님의 사랑은 그 원인에 있어 우리의 사랑을 앞선다. (22)

둘째 부분: 사랑의 네 가지 단계 (23-33)

- I. 첫째 단계: 자기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사랑함 (23-25)

- a) 육체적인 사랑 (23)
- b) 남들을 사랑하는 것 (24-25)
- II. 둘째 단계: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 (26)
- III. 셋째 단계: 하나님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함 (26)
- IV. 넷째 단계: 하나님 자신을 위해 자신을 사랑함 (27-33)
 - a)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잃는 것 (27)
 - b) 신화(Deification) - 인간의 실체는 남는다. (28)
 - c) 넷째 단계에서의 신체의 역할 (29-33)

셋째 부분: 보완적 논쟁 (34-40)

- I. 하나님에게 연결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 (34)
 - a)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4, 36) - 노예적 사랑
 - b)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4, 36)
 -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사랑
 - c) 하나님의 아들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34, 37) - 아들적인 사랑
- II. 보편적인 법으로서의 사랑 (35-38)
 - a) 하나님의 법 (35)
 - b) 종의 법 (36)
 - c) 하나님의 아들들의 법 (37)
 - d) 두려움과 탐욕의 법과 사랑의 법의 관계 (38)
- III. 요약과 결론 (39-40)
 - a)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단계 - 요약 (39)
 - b) 천국: 그 누구도 육체에 따라 자신을 알지 못하는 곳 (40)

III-3. 중심 개념들

필자는 위에 제시한 개요에 근거해, 베르나르의 사랑에 대한 중심적인 논의를 따라가면서 몇 가지 중요한 개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왜 그리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1-22장) 첫째 부분에서, 베르나르는 먼저 하나님이 왜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를 논하고

나서(2-16장),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를 이야기 하고 있다(17-22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의 동기(causa)는 무엇인가? 첫째 부분에서 베르나르는 질문을 제기하고 이에 답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변증법적인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을 위한 인간의 사랑을 설명하기 위해 베르나르는 “그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는 요한의 간단하지만 유명한 구절을 제시한다(I 요한 4:9-10).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간에게 주는 사랑의 증거이자, 하나님의 선물 그 자체이자, 그리고 하나님 자신(God-self)이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표현은 글 전체를 관통하는 중심 주제 중의 하나이다(7-15장). 하나님은 ‘그의 아들(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켰다.

인간들이 가진 모든 특징들과 모든 선한 것(존엄, 지식, 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아들을 통한 사랑과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모든 선물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랑의 원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동기이며, 하나님이 곧 효율적이고 최종적인 원인이다(22장). 중요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 자신의 행위가 진정한 사랑을 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이라는 점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 책의 주제는 ‘사랑’이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한 ‘하나님’ 임을 역설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인간이 이를 인식하지 못할 때, 인간은 무지에 빠져 동물처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물을 찬탈한 악마처럼 된다(SC, 38.2).

이 과정에서 베르나르는 ‘믿는 자(*fideles*)’와 ‘믿지 않는 자(*infideles*)’라는 중요한 구분을 전개한다.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는 베르나르가 이 책에서 염두에 둔 두 종류의 독자를 의미한다. 사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믿는 자에 대한 논의도 분명하게 드러나지만(7-13, 33장), 흥미롭게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논의가 글 전체에서 결코 적지 않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 글 전체는 두 종류의 독자들을 전제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란 단순히 이교도, 이방인, 이단, 혹은 무신론자를 의미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는 신을 믿지 않는 이교도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지만, 'infideles'라는 단어는 오히려 지혜롭지 못한 자, 초보자, 영적으로 느린 자를 의미한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보편적이고 광범위한 인간 범주라는 보다 넓은 뜻을 지닌다. 즉, 보편적 인간과 인간성, '이성적 인간(homo rationalis)' 같이 훨씬 넓은 범주를 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글에 나타난 사랑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런 보편적 인간과 이성에 대한 베르나르의 이해는 중요하다.

이 글은 동시에 수도원 상황과 구도자의 구체적인 삶이 보여주는 현상학적 방법(삶의 현장)과 베르나르 실존적인 정신(사려 깊은 해석정신)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다(Stiegman, 56).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베르나르는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양심과 행위 형태라는 인간 내의 경험(flesh)에서 시작해 신앙과 믿음 안에서의 가능성(faith)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이성적으로 설명(interpretation)하고 있다. 수도원적인 삶에 대한 경험과 복음서에 기초한 신앙적 이해가 인간경험에 기초한 이성적 추론과 연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험과 믿음이 해석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본성과 인간적 삶이라는 구체적인 현실에 기초한 '신앙적 낙관주의'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베르나르에게서 아직은 13세기 아퀴나스에게서 더 구체화된 신앙이나 종교에 대한 반대 혹은 대조적인 개념으로서의 이성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믿지 않는 자'가 갖는 보편적 인간(성)을 고려하면서, 베르나르는 믿음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보다는 필연, 공의, 이성, 법 같은 개념을 광범위하게 사용한다(예를 들어, 인간의 자기 보존을 위한 열망: 23-26장, 공의에 대한 요구: 21장, 이성과 자연적인 공의: 15장, 공의와 이성: 6장, 보편적인 법: 37장). 이와 같이 인간에 대한 보다 넓고 깊은 이해에서처럼, 이성 역시 보다 넓은 맥락에서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성이 인간이라는 진정한 의미를 되살려 준다. 이성과

의지에 이어, 34-40장에서 베르나르는 법(*lex*)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하나님의 사랑의 보편성)를 보여준다. 중요한 고비 때마다 기독교신앙에 기초하고 있지만, 베르나르의 글은 일종의 변증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도 결코 부인할 수 없다.

베르나르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마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믿는 자들은 보다 고상한 이유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를 논증하기 위해 베르나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 교리와 아가서 본문을 절묘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무엇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베르나르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하므로 병이 났음이니라”(아가서 2:5)는 아가서 본문을 그리스도의 수난, 죽음, 부활과 연결시켰다. 믿는 자들(교회)은 아가서에서 상징적으로 드러난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한다. 이 구절에서, 생명의 나무에서 취한 열매들(건포도와 사과)은 종말에 불멸이라는 결과를 산출해내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적으로 나타낸다. 이는 “그의 오른손으로 베개하고…”라는 구절로 이어지는데, 이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기억이 인간을 돕고, 하나님의 오른손이 부활의 열매를 간직해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구별은, 로마서에 나타난 바울의 설명처럼 다시 의의 세대와 배역한 세대로 나뉜다. 의로운 세대는 신랑에게 머리를 기대고 자기(인간)가 받은 좋은 것들(10장)을 기억하는 신부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억(*memoria*)은 영원(*aeternitas*)에 대한 기억을 의미하며, 성찬(*sacramentum*)과 본보기(*exemplum*)로서의 그리스도에 대한 기억(*memoria Christi*, 33)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기억이 바로 ‘육체의 무거움’을 견디게 하며, 자신의 연인이 품겨내는 사랑의 향기를 맡게 한다. 이러한 사랑의 향기가 인간에게 근본적인 힘을 주며, 창조와 회복의 재창조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커다란 은총은 이 땅의 삶의 고통마저 왜소하게 만든다.

하나님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은 제한 없이(*sine modo*) 사랑되어야 하며(16장), “하나님은 어떠한 한계 없이(*sine modo*) 사랑되어야 할 분”이라는 베르나르의 생각은 어거스틴의 편지에서 빌려온 개념이다.⁷⁾ 베르나르에 따르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 스스로 때문에 사랑되어야 한다(17장). 인간은 하나님을 보상으로 보고 섬기기 때문에(사실은 하나님 자신이 보상이고 혜택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도 유익이 된다(17장). 그리고 이 과정에서 사랑과 의에 대한 목마름만이 진정으로 인간을 자유롭게 하며(*sponte*), 바로 이러한 사랑이 인간의 자유의지의 기초가 된다. 그런데, 원인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을 앞서고(22장), 하나님이 인간의 열정을 만족시켜 주신다: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게 하며, 하나님은 당신이 바라는 것(21장)”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인간의 열정(욕망, 자유의지)을 자유롭게 하며, 하나님은 자신을 영혼에게 음식으로 준다. 열정과 바람을 통한 의지의 결정과 자유에 근거한 행동이 바로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 받을 만하게(*ut amaretur*)” 인간에게 다가온다.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동기와 방법인 것이다.

(2) 사랑의 의미와 사랑의 네 단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이어, 베르나르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네 가지의 구체적인 단계를 제시한다(23-33장).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네 단계의 사랑의 과정은 구도자들의 실천적인 자기 진전의 단계와 점진적인 영성의 발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베르나르가 실천에 기초한 전문적인 단어가 아니라 사랑에 대한 자신의 이성적 논리를 통해 그러한 실천적 함축을 여지없이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베르나르는 사랑을 뜻하기 위해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의

7) 이 개념은 친구 세베루스(Severus, Milevis의 주교)가 어거스틴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온다. PL 33.419.

사랑 개념은 어떠한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베르나르는 '사랑'이라는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 *amor*, *caritas*, *affectio*, *affectus*, *dilectio*, *cupiditas*, *desiderium*이라는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 중에서 *affectus naturalis*라는 개념을 가장 중심적인 것으로 제시한 스티그만도 동의했듯이, 베르나르는 글 전체의 사랑의 논의를 관통하는 특정한 라틴어 단어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지는 않았다. 베르나르가 사랑을 나타내는 다양한 단어들의 개별적인 강조점과 용례가 다르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상이한 단어들은 사랑을 경험하는 다양한 측면을 풍부하게 드러내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근본적인 지향점과 토대를 보다 확실하게 구성해 주고 있다. 베르나르의 문학적 열정과 논리를 동시에 나타내 주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 외적 표현의 상이점을 넘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상징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⁸⁾

베르나르에게서 하나님의 사랑(God)과 인간의 육체(자아, 육체, 양심, 존재의 문제, 인간의 행동 양식)는 적절한 균형과 긴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그가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이중구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해야 한다: 자연과 은총, 타락과 구속, 모양-형상(image-likeness), 요한 신학의 말씀과 세상(Word-world). 이런 논의의 보다 근본적인 기원은 바울이 언급한 영과 육에 관련된 성서적인 구조에서 발견할 수 있다(갈 5:17). 영과 육의 이중구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다른 구절(고전 15:44)과 함께 바울 이후 기독교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그러나 베르나르의 논의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베르나르는 성서적인 전문 용어와 신학개념들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은 채, 이러한 영과 육의 문제를 전개하고 있다는 것이다 (Stiegman, 52).

네 단계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베르나르의 분석적 노력을

8) 이 글은 베르나르가 특정한 단어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과 같은 단어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Corpus*, *necessitas*, *ratio*, *infideles*, *resurrectio generalis*, *consummatio*.

가장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논의는 베르나르의 아주 독창적인 구성을 보여주고, 그 단순성과 포괄성에 있어 놀랄 만한 구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구도는 사랑이 갖는 경험적인 측면에 대한 가능성을 한껏 열어두고 있다.

네 단계의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총'을 다룬 22장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미 1장과 21장에서도 다루었듯이,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진보를 보여주는 네 가지 사랑의 단계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선행하는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이 베풀어 준 은총과 선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선적인 이유이며, 하나님이 '사랑'(사랑하는 인간의 상태)을 창조했고, 인간의 열정과 소망을 완성시켰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선행적 은총 개념으로 정립된 것이다.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에 기초하여, 베르나르는 네 가지 사랑의 단계를 다음과 같이 전개한다. 첫째는 인간은 인간 자신이 갖는 자연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23-25장). 물론 여기서 자연적인 이유란 믿지 않는 자들마저 동의할 수 있는 이성과 자연에 기초한 논의를 의미한다. 인간은 그의 이웃과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은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된다. 둘째, 인간이 받은 좋은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사랑한다(26장). 여기서 인간이 받은 좋은 것이란 외형적 표피를 뚫고 지나가면, 인간이 받은 혜택과 선물은 다름 아닌 아들을 통해 직접 인간에게 다가온 하나님 자신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오직 돌과 같은 자만이 은혜를 베푸는 자의 사랑스러움을 모른다. 셋째, 하나님 자신의 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26장). 이 셋째 단계는 인간이 이 땅의 삶에서 이를 수 있는 가장 고상한 단계이다. 넷째 단계에서, 영혼은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사랑할 수 없다. 즉, 인간은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 자신을 사랑한다(27-33장). 이 단계는 이 땅 위에서도 잠시나마 가능하지만(9장), 육체의 부활 이후의 삶(내세의 삶)에서 보다 완벽하게 가능한 삶이다. 바로 이러한 네 가지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인간 노력의 단계를 구조적으로

말끔하게 정리해 주고 있는 것이다. 수도원에서 정화-조명-완성 같은 다양한 단계를 지나 완전해 나아가듯, 베르나르는 지극한 사랑의 완성과 발전을 설명하기 위해 사랑의 개념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네 가지 단계 자체와 더불어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 하나는, 베르나르가 육체의 부활 이후의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을 논하는 과정에서 전개한 육체와 영혼에 대한 몇 가지 논의다. 죽음과 육체의 부활 이후에 전개될 네 번째 단계에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신을 잃고(27장), 신과 같이 되며(defication), 그리고 영혼은 여전히 신체를 기다리고 있게 된다(29-33장). 그래서 죽음과 육체적 부활 사이에 의로운 자들의 영혼은 “영원한 빛의 바다”에 잠겨 있으면서, 완전한 행복을 위해 신체의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는 죽음 이후와 재림 사이에 육체와 영원의 관계를 비교적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런 논의는 베르나르가 인간의 세 가지 존재 상태(이 땅 위, 죽음 이후, 육체의 부활 이후)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른 경우에서와 같이 베르나르는 이 문제를 아가서의 시적 구절을 동원해 전개하고 있다. 이 논의의 근거 본문은 “나의 친구들이여, 먹고… 마시고… 많이 마시라”(아가서 5:1)는 구절이다. 먼저, 이 땅 위에서 수고하는 영혼들(사랑을 통한 믿음으로 사는)에게 음식이 제공된다. 둘째로 죽음 가운데 쉬고 있는 자들에게는 또한 마실 것을 권유한다. 아직까지 이 영혼들은 우유(젖)에 의해 농도가 완화된 와인을 마신다. 이는 아직 완전한 신적 합일이나 신성화의 단계에 접어들지 못한 인간을 위한 배려이기도 하며,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근거해 신체에 결합되기를 바라는 영혼의 상태와도 연결되어 있다. 셋째, 사랑으로 가득한 자들은 완전히 도취해, 완벽하게 하나님처럼 되어서 지혜라는 술에 취하게 된다(시 22:5). ‘지혜(*sophia*)’가 세 단계에 이르는 만찬을 관할한다면, 음식과 와인을 제공하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다. 오직 사랑으로 가득 찬 자만이, 천상의 지극한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들어 갈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아들이 거하는 처소를 능가하는 즐거움으로 취하게 되는 것이다.

(3) 보완적 논쟁과 논의의 요약

사랑에 대한 네 가지 단계를 논의하고 나서, 베르나르르는 카르투지안에게 보낸 이전의 편지로 눈길을 돌린다. 마지막 논의에 해당되는 네 개의 장(34-37장)은 바로 카르투지안들에게 보낸 베르나르르의 편지에 기초한 글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앞부분의 논의에 비해 상당히 추상적이며, 네 단계의 사랑의 단계와 아가서에 등장하는 연인의 상징적 이미지도 그리 분명하게 등장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사랑이라는 개념에 근거해 이전의 논의들을 확대 보완하고 있다.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연결하기 위한 세 가지 종류의 사랑의 방법(34, 36, 37장)과 세 가지의 법(35, 37, 38장)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어 있다. 진실한 사랑은 청결한 마음, 평화로운 양심, 그리고 순수한 믿음에서 나온다. 이는 종이나 피고용인에서 볼 수 있는 두려움과 금전적 보상에 기초한 사랑이 아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 버리고(요 4:18, 38장), 동시에 아들의 사랑과 같은 자발적인 것(*spontaneum*)이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흠이 없으며, 영혼을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는 어떤 것도 제거해 버린다.

이러한 사랑은 이것에 의해 하나님이 사는 법(*lex*)이다. 이 법은 다시 세 가지로 생각될 수 있는데, 사랑(*amor*)의 법, 이성(*rationalitas*)의 법, 그리고 공의(*iustitia*)의 법이 있다. 인간은 이 영원한 법(35장)을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선물로만 소유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실체(35장)를 갖고 있고, 또한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능동적인 측면을 소유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인간으로 하여금 '즐겁고 쉽게' 반응하도록 만든다(38장). 베르나르르는 이 점에서 또 다시 추상적인 사랑의 방법과 세 가지 법을 '쉽고 즐겁게' 풀고 있다. 아마 베르나르르의 글쓰기가 보여주는 '자유로운(*sponte*)' 의미의 전환이 이 작품의 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작품의 마지막 장(39-40장)은 이 논문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네 단계의 사랑에 대한 간략한 요약에 담고 있다. 여기서도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는 인간 자아(self)에 대한 현실적인 이해에서 시작한다. 인간은 육체적 열망(*cupiditas carnalis*)의 산물이기에,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인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첫째 단계). 베르나르는 육체적인 상태에서 영적인 상태로 올라가는 상승의 방향(수사들의 고행이 보여주는 상승ascent 개념과도 연결된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기에, 인간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둘째 단계). 인간은 명상, 기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한다(셋째 단계). 베르나르는 여기서 첫째 단계의 육체적 측면에서 영적 측면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론과 수도원적인 수련 수단을 언급하고 있다. 죽음과 육체의 부활 사이 기간에 인간은 완전한 행복을 기대하며 지낸다(넷째 단계). 바로 이 단계에서 인간은 온전한 하나님 안(보편적인 사랑의 법인 하나님의 정의)으로 통과해 들어간다. 바로 여기에서 모든 육체적인 필요가 사라지고, 인간의 현재의 약함이 신적인 상태(온전한 상태)로 변화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혼에게 봉사했던 신체는 영혼이 누릴 영광을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서 이제는 넓고 강력한 시간이라는 바다를 가로 질러 끌려가고 있는 사랑의 그물은, 모든 종류의 고기를 잡으면서, 해안가로 당겨질 것인데, 거기에서 나쁜 것들이 버려질 것이요 그리고 오직 좋은 것들만 간직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모든 종류의 고기가 사랑이라는 그물 안에 잡힐 것인데, 거기에서 당분간 그것은 그 자체에 모든 역경과 변명을 꿰어들며 모든 것에 순응할 것입니다(40장).

사랑에 대한 긴 논의를 베르나르는 위와 같은 구절로 맺고 있다. 영원한 해안가에 시간이라는 바다를 가로질러 모든 영혼을 잡아들여 끌어가는 “사랑이라는 그물”에 대한 목시적인 비전으로 이 글은 끝나고 있다.

IV. 결론: 다시 사랑을 논하며

사랑이라는 주제는 중세 수도원의 삶과 문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수도원적 성경해석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은 아가서와 시편에 기초하여 확대 해석되었으며, 수도사들의 실천적인 삶과 신학적 이해에 중요한 근거를 제시했다. 이러한 사랑에 대한 논의를 수도원이라는 상황을 기초로 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베르나르의 작품과 사상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인은 최근 점증하는 관심을 받고 있는 베르나르의 *De diligendo Deo*를 중심으로 그의 삶과 사상, 특별히 사랑에 대한 논의를 고찰해 보았다.

클루니의 현실을 경시한 지적인 경향과 급변하기 시작한 12세기 종교 문화적 지평에서, 베르나르는 변증과 신학의 전개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강력한 도구를 발전시켰다. 그의 사랑에 대한 이해는 자신이 몸담았던 시토회의 수사들의 오랜 전통 위에서 발전되었으며, 그의 많은 저서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특별히, 40장에 이르는 짧은 저술인 *De diligendo Deo*는 사랑이라는 개념과 방법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정교하게 보여주고 있다. 자신이 수도원적 작가였지만, 수도원의 신학과 용어를 과도하게 드러내지 않았고, 350여 개에 이르는 성경구절의 인용에도 불구하고 교조적인 강요보다는 자연, 인간의 본성, 그리고 인간의 육체라는 현실성에 기초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사랑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으며, 논리적 정연함과 터질 듯한 풍만한 사랑의 이미지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베르나르는 동시에 *caritas*와 *cupiditas*를 포함한 사랑을 나타내는 다양한 라틴어 용례를 다루면서 표현의 다양성 속의 신학적이고 영적인 통일성을 일구어 내었다. 인간의 몸(flesh)과 하나님(God)이 주도한 사랑 사이의 긴장과 역설은 전체 40장에 걸친 사랑이라는 이야기를 진부하지 않고 매끄럽게 이끌어 가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De diligendo Deo*는 베르나르의 아가서 주석서와 함께 사랑에 대한 깊은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각 종교를 대표하는 사상 중에서, 기독교는 오랫동안 사랑이라는 개

념을 주된 상징으로 삼아왔다. 그러나 개신교의 등장과 종교에 대한 합리성과 이성의 도전은 역설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이나 소망보다는 믿음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몰아왔다. 그리고 현대 기독교인들, 특히 한국기독교인들도 사랑보다는 믿음에 대한 강조에 매진한다. 그러나 각박한 현대 문명을 넘어선 종교적, 특히 기독교적인 대안은 사랑에 대한 강조점을 회복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점에서 베르나르의 작은 저작이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을 것이다.

〈 참고 문헌 〉

- Bernard, *On loving God [De diligendo Deo]*, Emero Stiegman, ed., Mich., Kalamazoo: Cistercian Publications, Inc., 1995.
- Bredero, Adriaan Hendrik, *Bernard of Clairvaux: Between Cult and History*, Grand Rapids, Mich.: W.B. Eerdmans, 1996.
- Lawrence, C. H., *Medieval Monasticism: Forms of Religious Life in Western Europe in the Middle Ages*, Harlow, England: New York: Longman, 2001.
- Matter, E. Ann. *The Voice of My Beloved: the Song of Songs in Western Medieval Christianity*, Philadelphi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1990.
- McGinn, B. and J. Meyendorff, *Christian Spirituality: Origins to the Twelfth Century*, New York: Crossroad, 1985.
- Pennington, M. Basil, ed., *Saint Bernard of Clairvaux: Studies Commemorating the Eighth Centenary of His Canonization*, Kalamazoo, Mich.: Cistercian Publications, 1977.

〈Abstract〉

'Love' in Bernard of Clairvaux's
De diligendo Deo

Kim, Jae-hyun

The theme of 'lo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monastic life and literature of the Middle Ages. The concept of love or loving in monastic exegesis was expanded on the basis of *The Song of Songs* and *The Psalms*, and also provided a strong theological foundation for the practical life of the monks and nuns. The works and thought of Bernard of Clairvaux (1090-1153) highlight the discussion of love in the wider context of medieval monasticism. Paying special attention to Bernard's *De diligendo Deo*, I will explore the Bernardian usage of the concepts of love and loving God.

In the religious and cultural contexts of the twelfth century when Cluny neglected the changing society and new religious streams emerged, Bernard and the Cistercians articulated dialectical and theological concepts of love. Bernard's understanding of love was shaped based on the Cistercian tradition and was broadened further in his own writings. His short book which consists of only 40 sections, *De diligendo Deo*, raised fundamental questions concerning the concept and method of loving God. Though he was a monastic writer, he did not employ monastic terminology too abundantly. In spite of his numerous citations of Scriptural passages, more than 350 citations in *De diligendo Deo*, Bernard deals with the subject of

loving in very logical and persuasive ways with a deep understanding of human realities. In his adroit interpretation of various Latin terms from *caritas* to *cupiditas*, we can see a certain theological and spiritual unity. In this way, Bernard's *De diligendo Deo* reveals a profound meaning of love and loving God.

주제어: 베르나르, 사랑, 수도원, 인간, 하나님, *De diligendo Deo*.